

[제2016- 호]

 한국문화원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3쪽
배포일시	2017. 1.25 (수)	담 당 자	최희선 323-936-3014

생활 속의 한지 (The Use of Hanji in our Life)

- ▶ 전 시 명 : 생활 속의 한지
- ▶ 일 시 : 2017.2.10(금)-2.24(금)
- ▶ 개 막 식 : 2017.2.10(금) 7:00pm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 최 : LA 한국문화원, 고현한지연구회
-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정계화 - 모란문콘솔



우제주 - 물결장식장



박수진 - 연화문투각고비



홍미경 - 약장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과 고현한지공예연구회(회장 정계화)는 2017년 2월10(금) 부터 2월24일(금)까지 “생활 속의 한지”란 제목으로 한지 공예품 전시를 LA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한지와 지공예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를 함께하였다. 닥나무의 단단한 껍질을 삶고, 벗기고, 말리고, 짓이기고 등 복잡하고 힘든 수작업을 통해 질기고 멋스럽게 만들어낸 한지를 다시 염색을 하여 화려한 색으로 탄생된 한지로 공예품을 만든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단단하고 질긴 한지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요긴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화려한 색을 사용한 공예품 등을 제작하여 장식용품으로 생활에 윤기를 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요즘은 질기고 아름다운색을 가진 좋은 제품들이 많아 우리 고유의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한지공예품은 소수의 장인들과 문하생들의 작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부산시 공예명장(종이분야)으로 지정된 고희한지공예협회 정계화회장은 “한지공예를 전통공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통적인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한 후 자신만의 색깔로 다시 재해석하여 진정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한지공예가 발전되고, 더불어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다” 라며 우리의 성장과 함께 한지공예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지공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2006년부터 정기 전시회를 꾸준히 가져온 고희한지공예가협회원들은 한번도 같은 색, 같은 류의 작품을 내보이지 않고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로 작품을 제작하여 선보여 왔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번 전시는 고희한지공예협회 회원 중 12명이 참여하여 50여점의 작품을 선 보일 예정이며, 작품들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미주동포들은 물론 타 커뮤니티에 소개하여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종이문화와 함께 공예예술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참여작가 : 김경숙 / 김미양 / 남현숙 / 박수진 / 박양선 / 송민영 / 우제주 / 전미주 / 정계화 / 최문선 / 홍미경 / 홍현정

“생활 속의 한지” 전시는 2017년 2월10일(금)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2월24일(금)까지 개최되며, 개막식에는 고희한지공예가협회 회원들이 참여 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최희선 323-936-3014로 하면 된다.